

김시중 『이카이노시집』 (1978)에서 보이는 여성 표상에 대한 한 가지 고찰

오카자키 료코 (리쓰메이칸대학)

1. 들어가며

1.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김시중(1929~)은 재일조선인 1세이며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이다. 그는 식민지 시대 하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일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는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언어가 되었다. 김시중은 해방 후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사건(이하 제주 4·3)에 연루된 것이 원인이 되어, 1949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이카이노(현재의 이쿠노구)에서 생활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후, 그는 일본어로 글을 쓰는 재일조선인 1세 시인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8편의 시집을 발표했다.

김시중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그 대부분이 그의 작품을 식민지 시기의 체험이나 제주 4·3의 체험, 또는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차원에서 논한 것이다¹⁾. 한편 김시중의 작품을 젠더 관점에서 논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시중의 작품을 타인표상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작품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김시중의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읽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연구 방법과 시집 소개

김시중의 작품을, 시집마다 타인표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타인이나 남성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많으며, 여성이 그려져 있는 것은 적다. 그러나 1978년에 발표된 『이카이노시집』²⁾은 예외이다. 왜냐하면 이 시집에서는 김시중이 이카이노라는 조선인 취락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사람들을 부감적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시집보다도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카이노시집』에서 김시중이 재일조선인 여성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그가 어떻게 여성 표상을 하고 있는지, 또 그가 당시 여성에 대해 어떠한 젠더관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김시중의 작품을 ①관념적인 것과 ②객관적인 것, 즉 타인표상을 하고 있는 것과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②-1 자신 속의 타인표상과 ②-2 제3자의 타인표상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②-2 제3자의 ‘타인’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작품 속에 젠더관이 나타나 있는 시어나 역할 분담을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여성을 나타내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고찰한다.

1) 김시중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세중, 『리듬과 서정의 시 : 김시중 「장편시집 니가타」의 시적 언어를 중심으로』, 후지와라 서점, 2010. 호소미 가즈유키, 『디아스포라를 사는 김시중』, 이와나미 서점, 2011. 아사미 요코, 『김시중의 말과 사상 : 주석적 독해의 시도』, 2013년도 오사카부립대학 박사학위 논문.
2) 『계간삼천리』 (1975~1987)에 간행된 잡지의 창간호부터 『이카이노시집』의 바탕이 되는 작품이 실려 있다.

2. 작품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카이노 시집』³⁾에서의 여성 표상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한다. 첫째, ①남성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여성, 김시종이 가진 남녀의 젠더관을 고찰한다. 둘째, ②어머니로서의 여성, 김시종이 가진 어머니상을 고찰한다. 셋째, ③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 김시종이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2.1 남성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여성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는 남성과 대비를 이루는 형태로 여성이 묘사되고 있다. 여성에 대해서는 “여자의 억척이 각별하다”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성이 강하고 억척스럽게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편 남성에 대해서는 “사내가 사내인 것은/자식에게 큰소리칠 때 뿐”⁵⁾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내’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강하고 생활력이 있는 여성과, 약한 자에게만 큰소리를 치며 생활력이 없는 남성이라는 대비로 남녀를 그리고 있다.

또 본 작품 후반에서는 ‘이카이노’ 마을을 ‘그’라는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반부에는, “안짱다리 여자가 길을 막고선/일본어 아닌 일본어로/고래고래 고함치는 거야”⁶⁾라고 이카이노에 사는 ‘여자’가 등장한다.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로 말하는 장면은 『잃어버린 계절』(2010)의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데⁷⁾, “어설픈 사투리로 늘어버렸다”, ‘노파’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상태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이카이노에 사는 ‘여자’가 공통적으로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로 말하고, 게다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2.2 어머니로서의 여성

『이카이노시집』 안에서 어머니는 여러 작품에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이라’ 상태의 ‘어머니’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이라의 어머니’는 「재일의 끝에서 4」와 「재일의 끝에서 5」라는 작품에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재일의 끝에서 4」에서는 ‘내’가 ‘아내’와 거리에 있을 때, “마른 나무 당신이 맥없이 쓰러지시고/미이라인 어머니가 엎어지셨습니다/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셨습니다”⁸⁾라고 묘사되어 있다. ‘아내’와 ‘나’는 일본의 ‘거리’(이카이노)에 있는 한편, ‘한국’에서 죽은 ‘당신’(=‘아버지’)을 ‘미이라의 어머니’가 간병한 장면이다. 『조선과 일본에 살다』(2016)에 따르면, 김시종의 아버지는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몇 년 후에 병으로 몸져누운 상태가 되었고, 그 후에 숨졌다.⁹⁾ 또 김시종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외아들인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을 쳤으니까요. 부모님은 산 채로 미라처럼 되어 돌아가셨습니다”¹⁰⁾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미이라의 어머니’의 배경에는 김시종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 원체험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재일의 끝에서 5」에는 “바라지 않은 죽음을/강요받은/사자에게/편히 눈감을 날은/영원히/오지

3) 본 연구에서는 김시종 『이카이노시집』 도쿄신문출판국, 1978년, 제1쇄를 기본으로 한다. 작품 인용문에서 ‘/’는 줄바꿈을 나타내며, 공백으로 표현된 부분도 본문 그대로 인용한다.

4) 김시종, 『이카이노시집』, 앞의 책, p10.

5) 위와 같음.

6) 위의 책, p14.

7) 김시종, 『잃어버린 계절 김시종 사시시집』, 후지와라서점, 2010, pp.112~113.

8) 김시종, 『이카이노시집』, 앞의 책, p.152.

9) 김시종, 『조선과 일본을 살다 : 제주도에서 이카이노로』, 이와나미서점, 2015, p.282.

10) 김석범, 김시종, 『왜 끊임없이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헤이본샤, 2015, p.197

않으리라”라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나온 후, 사자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 앞에서 “살면서/미이라가 된/어머니/그 행렬의/끝자락에/달라붙어 있다”¹¹⁾라는 묘사가 나와 있다. ‘죽음을 강요받은 사자’란 김시중이 제주 4·3으로 숨진 사람들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다.¹²⁾ ‘살면서 미이라가 된 어머니’는 당시 ‘어머니’의 상황, 다시 말해 의지할 가족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어 절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타인표상이란, 표상하는 주체의 심경이나 사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김시중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이라’화된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배경에는, 김시중이 제주 4·3 와중에 부모님을 두고 일본으로 도망쳐 온 것에 대한 자책감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2.3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

『이카이노시집』에 등장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여자’ 또는 ‘어머니’, ‘아내’, ‘할머니’, ‘딸’ 등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역할로 나온다. 이것은 다른 시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그러나 몇몇 작품에는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노래 둘」이라는 작품에는 ‘남편’을 잃은 ‘하루코’가 이카이노 마을에서 나오기를 꿈꾸며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남편’을 잃고 아이와 생활하기 위해서 ‘직공’을 하며 필사적으로 생활하지만, “일본에서는 도무지 마음이 밝아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아침까지의 얼굴」이라는 작품은 이 시집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단편 소설이다. 한 집안의 어머니인 ‘그녀’와 막내딸 ‘연이’의 이야기로, 가족 5명과 할머니가 등장한다. 그녀는 고무를 자르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이’는 이공학을 배우고 싶어하면서 조선학교에는 학부가 없어 고민하는 동시에, 2세인 ‘연이’는 본 적도 없는 고향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이어받고 있다. 한편 어머니는 현실 생활에 필사적으로, 그저 일하면서 생활하는 장소(이카이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다.

「노래 둘」과 「아침까지의 얼굴」의 여성 표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남편을 잃은 여성, 혹은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여성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들 여성이, 이카이노에서 직공이나 고무를 자르는 마을 공장에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반면 재일조선인 1세와 2세 각각의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차이점은 고향에 대한 인식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1세 여성은 고향을 알고 있으며, 이카이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2세의 여성은 고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노래 둘」에서 “하루코에게는 딱히/한국노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모든 노래가/그녀에게는 고운 조선의/노래인 것이다.”¹³⁾에서는 고향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2세인 ‘하루코’에게는 모두 ‘조선’이라는 고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아침까지의 얼굴」에서 2세인 ‘연이’가 “정말 고향이 따로 있는 걸까? 2세에게는 고향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야기가 스며든 장소가 고향이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자문자답하는 묘사에는 고향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1) 김시중, 『이카이노시집』, 앞의 책, p.161.

12) 김시중은 2021년 3월 28일 인터뷰(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주최, 발표자 동석)에서 제주 4·3 중에 희생된 사람들은 ‘죽음을 강요당한 사자’임을 강조했다.

13) 김시중, 『이카이노시집』, 앞의 책, p.34.

3. 나오며

이처럼 김시종은 다양한 이카이노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 작품 분석을 통해 본 김시종이 그린 여성상을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면, 우선 이카이노에 사는 여성은 남자에게 의지할 수 없거나 남편을 잃고 가족을 위해 필사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존재, 이른바 ‘현모양처’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이 틀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히스테릭하게 ‘떠들어대는’ 여성도 조금이긴 하지만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이카이노에 사는 재일조선인(혹은 김시종 자신)의 고향에 있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다. 김시종은 어머니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미이라’ 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미이라’ 라는 표현에서도 가족을 지켜내는 인내심 강한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여성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들 여성상과 다른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재일조선인 2세 여성들이다. 재일조선인 2세 여성들은 전자의 여성과는 가치관이나 고향에 대한 생각이 다른 존재로 그려져 있다. 오빠처럼 이공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연이’, 배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이카이노 버스정류장에서 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하루코’에서는 고향과 장래를 고민하면서도, 작은 희망과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고, 그녀들 각자의 인생을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시종이 『이카이노시집』에서 여성 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 1세의 여성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그의 여성상에 입각하여 그렸다는 것, 또한 고향에 있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묘사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와 라이프 히스토리가 원체험이 되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재일조선인 2세 여성에 관해서는, 재일조선인 1세 여성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그렸다는 것을 밝혔다. 이 점은 『이카이노시집』의 여성 표상의 큰 특징인 동시에, 당시 김시종이 재일조선인 2세에게 거는 미래에 대한 마음과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이카이노시집』에서의 여성 표상과 당시 김시종의 사상적 배경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심화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을 것이다.

참고문헌

金時鐘 『猪飼野詩集』 東京新聞出版局、1978年

金時鐘 『失くした季節 金時鐘四時詩集』 藤原書店、2010年

金石範、金時鐘 『なぜ書きつづけたか 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2015年

金時鐘 『朝鮮と日本に生きる：済州島から猪飼野へ』 岩波書店、2015年

(번역책임자:김예진)